


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샬롬채플**
  9:00A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공중 나는 새를 보라(찬307/새588장)

**기도** Prayer ..... All together **다같이**

**1부/**조부연 장로 **2부/**정낙성 집사 **3부/**조광종 집사 **4부/**이가현

**찬양(1부)** Anthem .....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있으니(민남일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누가복음(Luke) 18:1-8 ..... All together **다같이**

**4부/**창세기(Gen.) 17:1-5

**말씀** Message ..... **1, 2, 3부** .....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삶

**4부** ..... Rev. Jaden Gong **공병주 목사**

**기록되지 않은 시간**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축도** Benediction .....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동사목사 칼럼**
**Pastor's Column**

# 나를 바꾸는 사랑

## Love That Changes Me



**황모세 목사** / Rev. Moses Hwang

참으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깊이 생각하게 한 책입니다. 그중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한 학자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마서스 비니어드 섬에 있는 칠마크 마을을 연구했습니다. 19세기 이 마을에는 주민 25명 중 한 명꼴로 청각장애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다수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대신, 마을 주민 모두가 수화를 배워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죠. "또 다른 주민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양반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주는 법도 없고, 저편에서도 그에 대해 민감하게 굴지도 않죠. 다른 이들을 대하듯 똑같이 대우하면 그뿐이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섬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문화를 바꾸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회 전체가 더 풍요로워졌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기를 기대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꺼이 나를 바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아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이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수직적인 은혜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찾아온 한 사람을 위해 익숙한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꿉니다.**

There is a book that I read with deep impression. It is Pastor Tim Keller's <Generous Justice(published in Korean as Tim Keller's What Is Justice?)>. It is a book that makes one think deeply about the justice spoken in the Bible and the life of a Christian. There is a story in the book that has stayed in my heart for a long time.

In the 1980s, a researcher studied the village of Chilmark on Martha's Vineyard island in Massachusetts. In the 19th century, about 1 in every 25 residents in this village was deaf. However, a remarkable fact was discovered. Instead of the deaf people adapting to the majority's way of life, all the villagers had learned sign language and were living together as one community.

One resident said: "They aren't disabled. They just can't hear." Another resident recalled: "They were just like us. So, we didn't treat them with any special kindness, and they weren't sensitive about it either. We just treated them the same way we treated everyone else."

Pastor Keller explains the lives of these people in this way: "The islanders changed their culture to embrace a minority at risk of disadvantage, and in the process, the residents and the entire society became richer." It is a truly beautiful story. Have we ever changed our way of familiarity and comfort in order to love someone? Rather than expecting the other person to adjust to us, have we ever willingly changed ourselves for them?

The Bible reveals a God of justice who cares for the vulnerable and marginalized. Above all, Jesus Christ humbled Himself to come to this earth to save us, and gave Himself up on the cross. Because we could not approach God, God came to us first.

Christian love begins in this grace. Having received the love of Christ who humbled Himself for us, we too willingly humble ourselves for someone else. Thus, the vertical grace received from God flows into horizontal love toward our neighbors. Are we, as a church, ready to change our familiar ways for a single newcomer? **Those who are loved by the gospel willingly change themselves in order to lov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황모세 목사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삶

## 누가복음 18:1-8

적용하기

**1.**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1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는 각각 어떤 사람이었습니까?(2-5절)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조하십니까?(6-8절) 이 비유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4.**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은 어떻게 흔들리거나 성장했습니까?

**5.**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롬 8:32). 이 복음은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6.**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십니다(8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 **적용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 후기**
**멕시코 일일선교**

# 짧은 시간 긴 울림

지난 11월 7일 토요일, 저는 한의사로서 가진 달란트로 선교지에서 섬기기 위해 오랫동안 마음의 숙제처럼 품어 왔던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헵시바 예배 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님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 출발하여 번거로운 국경 절차를 거쳐 도착한 선교지에서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현지인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도착 직후 드린 예배를 시작으로, 70여 명의 저희 멕시코 선교팀과 현지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노방전도, 의료 사역, 아동, 미용, 안경, 통역 사역, 식당 봉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넘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섬김의 현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선교지에 오는 것이 버킷리스트였다는 집사님 가족의 간증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멕시코 일일 단기선교는 당일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고 사역의 폭이 넓으며,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어 첫 선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몸이 지치고 피곤했지만, 무언가를 나누러 갔다가 오히려 현지인들의 사랑과 섬김, 넘치는 은혜를 가슴 가득 받고 돌아왔기에 다음에도 꼭 다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가자와 봉사자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하시던 분주한 손길,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 묵묵히 땀 흘리시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장로님들의 든든한 섬김을 깊이 기억합니다. 또한 모임의 시작부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 주신 찬양팀과 오가는 발걸음이 안전하도록 운전을 책임져 주신 장로님들 덕분에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사역을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팀장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함께 땀 흘려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정임 권사**



**훈련 간증**
**기도학교**

#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자란 모태신앙인입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크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많은 은혜의 단비를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저의 신앙은 늦게 믿으신 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부러웠고, 아무리 기도해도 감감무소식인 응답에 낙망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한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시간을 통과하던 중 기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도학교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개강과 종강 때 찬양으로 섬겨달라는 부탁에 참석했을 뿐, 개강 당일까지 신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기도학교 부스 옆에서 한번 해볼까 하고 여쭤봤더니 신청자가 꽉 차서 더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곧이어 마지막 신청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속 얘기를 잘 나누지 않는데, 이번 기도학교 8기 14조에서는 제 속 얘기가 흘러나오고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기도의 목적과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기도한들 그게 이루어질까?' 늦깎이 영적 사춘기에 빠져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기도도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학교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우선이었고, 기도도 길게 하지 못했고, 중보기도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 저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영적 사춘기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못난 저의 신앙생활과 기도 습관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저의 기도 방향을 바꿔 준 밑거름이 되어 준 기도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스텝분들의 기도가 있었는지 새삼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김명현 집사**

사역 후기
힐링 킹덤

# 화관을 씌우신 은혜의 자리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 곤지암 여의도침례교회 드림센터에서 제13차 힐링킹덤 집회가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 속에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탈북 자매 45명과 이들을 사랑으로 품은 8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델교회를 비롯해 마음을 모아주신 한국의 여러 연합 교회와 봉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간식, 따뜻한 미소와 섬김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마음을 여는 찬양 율동,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선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 에스더 화관식,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배우며 서로의 아픔을 씻겨준 세족식, 소망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린 풍선 날리기, 그리고 은혜의 고백이 담긴 진솔한 간증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따뜻한 만지심이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경계심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찾아온 분들도 있었지만,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 앞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 되는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휴식과 교제의 모임인 줄 알고 참석했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고, 더 나아가 전도사와 목사 등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다시금 목도했습니다.

이번 힐링킹덤에 참석한 모든 자매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며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소망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헌신과 눈물로 섬겨주신 봉사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도와 물질로 기꺼이 동참해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뿌려진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나미 권사



믿음의 고백

# 그 손길 아래서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국에 가면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에 가서 앉아만 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온 지 6년째 되던 해, 제가 42살이고 아들은 5살 반, 딸은 3살 반이었을 때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도 전에 저의 고생은 시작되었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편과 부흥회와 새벽기도에 다니며 남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터널 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쳐 하나님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교인들의 기도 속에서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저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며 저 역시 회복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진 지 17년 반 만에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마지막 3년은 기도 삽관과 G-tube를 한 채 케어센터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남겨 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믿게 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2부 예배를 드리던 중 한 장로님께서 성가대를 권하셨지만, 노래도 못하고 악보도 볼 줄 몰라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간격으로 시누이가 다니는 교회의 지휘자 장로님께서, 그리고 딸까지 성가대를 권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께 여쭤본 후 3부 성가대에 들어가 코로나 전까지 10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힘들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챙겨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실까?' 하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옥진 권사



교회학교
Family Fall Fest

# 단비 속의 큰 은혜









I want to share about our Fall Fest and why it was so special. Fall is all about celebrating and being grateful for everything God gives us-our families, friends, and community. Wanting to share that joy, I invited my friend Judy, who isn't Christian, to come along. I was a little nervous at first, but we had an absolute blast playing games, winning candy, and laughing together. It made me so happy to show my friend how welcoming our church family is, and it reminded me how blessed I am. Fall Fest is a great way to thank God for His goodness and share His love. I'm so glad they came! God is truly so good.

Isabel Choi(5학년)

베델 가을 축제를 앞두고 비 소식에 아이들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야외 놀이기구를 취소하고 실내 공간을 마련했는데, 감사하게도 축제 당일에는 더 많은 가정이 찾아와 주었고, 가을비는 오히려 축제의 운치를 더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축제에는 모든 부서가 함께 쓸 체크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기대보다 더 많은 가정이 찾아왔어도 접수팀에서 오히려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당은 집사님들과 장식팀이 각 부서에서 보내온 소품에 개인 소장품까지 보태어 정성스레 꾸며 주셨는데 그 손길에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여인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주방 팀이 준비해 주신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모두가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깊어 가는 가을밤 온기를 나누던 가족들의 모습은 이튿날 주일 예배까지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품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주현 권사

여러 선생님들이 미리 모여 기도하며 '희생'을 주제로 K-5 가스펠 스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리더들은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를 각각 맡아 자료와 영상, 곡식 · 기름 등의 소품으로 부스를 꾸몄습니다. 비전채플은 어두운 미로와 가을 장식으로 변신했고, 아이들은 구약시대 복장을 한 선생님들의 안내를 따라 각 제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저는 감사와 서약, 자발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를 맡았습니다. 제사 드린 이도 제물을 함께 먹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니 그 의미를 예수님과 연결해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 놀라웠습니다. 귀여운 양 인형에게 안수한 뒤 양이 자신들을 대신해 희생된다는 이야기에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미로 끝에서 아이들은 강단 위에 실물 크기로 세운 나무 십자가와 채찍, 가시 면류관, 못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단번의 제사로 드려진 완전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지애 집사

행사 일주일 전, 당일 비 예보로 인해 저희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장소와 운영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전도사님들이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 끝에 모든 장소와 운영 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정말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빗 속에서도 우리가 행사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단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약 4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가능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추억과 깊은 감동, 오래도록 남는 여운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올해도 Family Fall Fest의 시간을 귀하게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가영 전도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헌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목사**
예삶채플: **최요셉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프리실라레페브리에이 전도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삶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연말 특별저녁 부흥회

우리가 이어받은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이어갈 사명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며, 사명은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2027년,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에 맡기실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며 임직 선출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번 임직은 단순히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복음의 사명을 함께 짊어질 사람들을 세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임직을 위한 특별 저녁 부흥회에 모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지금은 옆 사람이 아닌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베델교회의 내일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이어갈 복음의 사명을 위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 강사: 이혜진 목사(아틀란타 벧엘교회 담임)**
**▶ 주제: 이어받은 믿음, 이어갈 은혜**
**▶ 일정: 11월 30일(월)–12월 2일(수) 저녁 7시**
**▶ 특송: 월요일–신혼부부, 기쁨, 충성, JOY 목장(박경철, 서동민 목사 담당)**
**화요일–화평, 온유, 사랑 목장(박성권, 조태헌 목사 담당)**
**수요일–소망, 은혜, 믿음 목장(이충경, 배홍수, 이형석 목사 담당)**
**▶ 문의: 서동민 목사 (562)447–6947**
***집회 기간 중 교회학교 집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 예배 봉사자

| | | | | | |
|---|---|---|---|---|---|
| **주일예배 대표기도(11,12월) \|** | 11/22: | ①부–주용중 | ②부–이제석 | ③부–황대경 | ④부–박창희 |
| | 11/29: | ①부–장지봉 | ②부–주진철 | ③부–홍승평 | ④부–정예린 |
| | 12/6: | ①부–최재윤 | ②부–이창열 | ③부–황인수 | ④부–정용익 |
|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1,12월) \|** | 11/21: 전민혁 | 11/28: 전승윤 | 12/5: 김종곤 | 12/12: 정승우 | |
| **강단꽃(11,12월) \|** | 11/15: 장석우 | 11/22: 강정선, 서은숙, 윤주원, 주정숙 | 11/29: 이종선, 이미옥 | 12/6: 엄금연, 이지민 |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진(한의과), 간호사–박수잔　　다음주 \| 의사–이원섭(한의과), 간호사–박필연

##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푸른초장의 집, 한미가정상담소, 헤브론병원,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황모세 목사와 함께 떠나는 수요말씀여행 'Kingdom Perspective: Covenant'** 황모세 목사님과 함께한 8주간의 수요말씀여행이 마지막 시간을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새 언약을 함께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11월 18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돌봄/문의: 유아 · 유치부 및 K-5학년 대상, 조광종 집사 (949)706-4168**

**◆ 연말 특별저녁 부흥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받은 믿음과 결코 헛되지 않을 사명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7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같은 시간에 교회학교 집회도 있습니다.(7면 참고)
**일시/강사: 11월 30일(월)-12월 2일 (수) 저녁 7시, 이혜진 목사(아틀란타 벧엘교회 담임)**

**◆ 세례/입교식** 다음 주일(22일) 3부 예배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답식이 오후 1시에 있으니 대상자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BYM, CIM 문답 모임 장소: 비전채플**
**세례 및 입교식 일시/장소: 11월 22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문의: 박재문 장로 (949)241-4987, 이형석 목사 (714)944-8339**

**◆ 103차 베델동산 봉사자 모집** 103차 베델동산을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전 베델동산에서 은혜를 받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당 앞 부스나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12월 18일(금)-20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장로 (949)232-0872**

**◆ Back to Bethel: A Homecoming**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델의 온가족과 한때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우리의 자녀들과 오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QR 코드로 볼 수 있는 초대 영상을 활용해 주세요!
**일시/장소: 11월 21일(토)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코트야드에서 식사, 본당에서 예배)**
**문의: 김인규 장로 (949)331-8419**

**◆ 베델 사진관 운영** 다음주 주일(22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각 예배 시간 후 코트야드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가족과 셀 목장,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감사의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상곤 장로 (949)678-4004**

**◆ 베델한국학교 봄학기등록** 자녀의 뿌리와 미래를 함께 키우는 곳, 베델한국학교가 봄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조기등록 할인: 11월 14일(토) 오전 8시-11월 29일(주일) 오후 8시**
**신입생 및 일반등록: 11월 30일(월) 오전 9시-12월 13일(주일) 오후 9시**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황수정 집사 (949)562-5262**

**◆ K-12 크리스마스 합창단** 성탄절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K-12 크리스마스 합창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찬양 실력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모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대상: K-1,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BYM, CIM)**
**연습 날짜: 11월 22일, 29일, 12월 6일, 13일, 20일(총 5회)**
**시간/장소: 매주 주일 오후 12시 45분-3시(점심 제공),**
**장소/참가 신청: 비전채플, QR 코드**

**◆ 사마리탄 퍼스 캠페인** 전 세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선물상자를 전달하는 Operation Christmas Child Shoebox 사역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여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고, 작은 선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물상자에 넣을 물품〉 〈Build a Shoe-box Online〉
**참여 방법: 11월 15일(주일)-12월 6일(주일) 기간 동안 본당 앞에 마련된 부스에서 Shoebox를 픽업하신 후, 준비된 선물과 물품을 상자에 담아 다시 부스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문의: 정인주 집사 (949)418-2456**

**◆ 정기제직회** 11월 21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3/4 분기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교역자 동정** 예삶을 섬겨주신 공병주 목사가 오늘 주일(15일)부로 사임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위로해주세요**
故 송화선 님(김소영 집사의 시부)께서 11월 11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본당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Moses Hwang

# A Life that Endures When Nothing Seems to Happen

Luke 18:1–8

Apply to Life

**1.** Why did Jesus tell His disciples to "always pray and not give up" (v.1)? Why is prayer so important as we wait for Jesus' second coming?

**2.** What kind of people were the unjust judge and the widow (vv. 2-5)? Why did the widow keep going back to the judge without giving up?

**3.** How does Jesus contrast the unjust judge with God (vv. 6-8)? What does this parable teach us about why we can keep praying until the very end?

**4.** Have you ever experienced a time when it felt like nothing changed even after praying? During that time of waiting, how was your faith in God shaken or strengthened?

**5.** Through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God has shown us His love and faithfulness (Rom. 8:32). What comfort and hope does this gospel give us as we wait for answers to our prayers?

**6.** Jesus ask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v. 8). What are some things you should continue praying for without giving up until the Lord returns? How will you remain committed to prayer this week?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More Than My Prayers